

01 교회소식

겸손과 섬김의 새로운 시작!

'2018 주의 종·직원헌신예배'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깨어 나고 있는 GCNTV 힂디어 시청자들의 세미나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벨과 에녹, 노아 등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배우는 응답과 축복의 삶의 비결.

03 기획특집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 마음의 소원까지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합심기도',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치료는 물론 영적 축복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불로 실명 위기의 눈이 치료된 아르헨티나 아수세나 성도와 기도를 통해 영육 간에 축복받은 김광식 집사, 이지혜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827호 2018년 2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겠습니다!”

2018 주의 종·직원헌신예배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방송 되는 가운데 지난 2월 18일 주일 저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2018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다.

헌신자는 주의 종(교역자), 레위족(교회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에스더회(주

의 종 사모), 기도제물연합회 등 총 9,477명이었으며, 광주, 대전, 마산, 부산, 여수, 창원, 춘천 등 43개 국내 지교회에서도 헌신예배에 동참하였다.

이날 강사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로마서 5장 7-8절을 중심으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였다.

"목자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마음이다." 라고 전제한 후, 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셋째,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증거하였다.

한편, 헌신자들은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 다해 영혼을 사랑하며 무익한 종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인도, GCN TV 힂디어 시청자 세미나 열려



지난 2월 6일, GCN TV 힂디어 시청자 세미나가 인도 델리만민교회(담임 김상휘 목사)에서 열렸다.

슈버산데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힂디어로 방송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그 반응도 매우 뜨거워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세미나에는 1500 Km 떨어진 자하르칸 주를 비롯 판잡, 유포(UP), 하리아나 주 등에서 7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하였다. 강사 김상휘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 그리고 신앙 성장과 응답받는 비결에 관해 전했다. 참석자

들의 열띤 호응 가운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시청자 및 목회자 세미나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델리만민교회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고자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인도 공용어인 힂디어로 더빙하여 선교에 활용해 왔다.

응답과 축복의 기회! '2회 연속 특별 대니엘철야'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기간 2018. 2. 26(월) - 4. 8(주일) 주제 '2018년 7가지 기도제목' 장소 본당, 2,3성전 및 각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4~7)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얻기까지는 반드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길’을 따라 응답과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중 아벨과 에녹, 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선진들

1)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아벨’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이 땅으로 쫓겨나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누누이 가르쳤지요(롬 6:23 ; 히 9:22).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아들 가인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땅의 소산 곧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피의 제물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열납하시지 않자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가해 죽이고 맙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4~7)

오늘날도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나 찬양을 해도 그저 입술로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잡념과 졸음에 빠지지요. 십일조와 헌물도 드리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말 3:8).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오전이나 오후 예배만 드리면서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신 28장).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

에녹은 하나님께서 삼백 년 동안 동행하실 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창 5:21~24). 더욱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았지요. 죄를 버리고 성결되었기에 그에게는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성결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지요.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며, 죄를 다 버릴 수 있을까?” 말하지만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고 기록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벧전

1:15 ; 마 5:48).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지요(요 14:21). 에녹처럼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믿음을 좇아 의의 후사가 된 ‘노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살아온 지 약 1,5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창 6:9)를 택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지요.

물로 심판하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서 자손을 번성케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를 보전케 할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창 6:13~22).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심판에 대비할 것을 외치고 또 외쳤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비도 오지 않는데 큰 방주를 짓는다며 비웃고 조롱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음에도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돌이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지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겨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며 핍박에 못 이겨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또한 불이익이 오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서 기도를 쉬거나 사명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령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해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행할 때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을 받으며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1)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 자존심, 고집, 거짓 등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기가 어렵고, 자주 이론과 생각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옳은지를 궁구해 보며, 열심히 선한 행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에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2)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며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 10:17)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 삼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지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고 있을 때 범사에 형통한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사 1:19).

3)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으로 쌓았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약 2:22, 26).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행하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합심기도의 위력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부르짖는 합심기도도 있다. 합심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봄으로 날마다 합심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기 바란다.

합심기도의 영적인 의미

마태복음 18장 19절에 “...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심으로 합심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유 1:20). 곧 자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와 죄악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가 영의 마음으로 변화되니 성령이 주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하나 되

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거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소원에 따라,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를 수 있도록 진리로 기도하게 된다. 혹여 피곤했다가도 금세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게 됨으로 피곤과 졸음이 사라지고 영적인 깊은 교통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합심기도라 할 수 있다.

합심기도의 방법

하나님께서 합심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되 크게 역사하시는 까닭은 성령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기 때문이다. 합심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려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엡 6:18).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으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고전 2:10),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기에(롬 8:27)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나 꾸준한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 속에서 임의대로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쉽게 잠념이 틈타거나 피곤해져 졸음이 밀려오기도 한다. 중언부언하니 기도한 후에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누구나 처음부터 성령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마침내 기도 줄이 잡히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쌓았던 기도까지 기억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하셨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심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혹여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사회자는 찬송을 충만히 부르게 하고 회개케 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온다.

합심기도의 위력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한 120명이 모두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행 1:12-15, 2:1-4). 또한 사도들이 큰 능력을 받아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나 되었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으며, 성도들의 삶도 변화되었다(행 2:14-47). 합심기도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임하고, 눈먼 사람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내쫓는 등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다 해도 마음을 모아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행 12장).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일꾼들,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달라진다. 합심기도는 개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 마음의 소원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다(전 4:9-12).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향이 가늘고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파할 힘이 약하다 해도 함께 올리는 굵은 기도의 향에 합쳐질 때는 훨씬 강한 위력을 갖게

된다. 마치 강한 회오리바람에 휩쓸리면 무거운 물건이라도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듯이 각자 기도의 향이 하나로 뭉쳐져서 힘 있게 올라가는 것이다. 또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에도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 많다고 해서 합심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은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합심기도란, 말 그대로 마음을 모아야 하기에 이를 위한 구심점은 바로 성령이며, 모든 사람이 성령의 주관을 따라 하나 되어 기도할 때라야 참된 합심기도가 될 수 있다.

3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8.2.25~3.3

이재록 목사의 생령의 말씀

- 아버지 하나님만
- 3차 영혼육 2-6
- 공간과 차원 4-7
- 창세기 강해 24-29
- 요한일서 강해 1-6
- 요한계시록 강해 21-27
- 목자의 마음
- 지옥 3-7
- 일곱 영 3

GCN TV설교

- 감추인 어두움 (이수진 목사)
- 섬김 (이미영 목사)
- 자기 발견 8 (이미경 목사)
- 목자의 공간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40 (신동초 목사)
- 1계명 2 (정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17
- 모두 드려요 32
- 옛날 옛적에 (시즌2) 10
- 내 마음의 찬양 3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9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
- 마지막 때 17
- 창조와 과학 1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3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권능의 기도 통해 치료는 물론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김광식 집사 (60세, 2대대 20교구)



저는 아내로부터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일 밤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매년 열리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에서 당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상을 받는 축복까지 받았지요.

그런데 2017년 10월 초, 왼쪽 목에 딱딱한 몽우리가 생기고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질병도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매일같이 믿음으로 마셨더니 어느새 통증이 사라지고 몽우리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11월 초에 오른쪽 목에도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약간 빠근한 통증이 있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병원 검진 결과, 의사선생님은 ‘하시모토 갑상선염’(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겨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성령을 의지하여 중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것이 부족했던 것을 깨우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이후로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영적인 깨우침을 얻고자 노력하며, 범사에 영혼이 잘되는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집중하였지요.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무안단물도 매일 마셨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에는 통증은 물론, 몽우리까지 깨끗이 사라졌고 몸도 아주 가벼워졌지요.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지혜 자매 (23세, 2청년선교회)



2016년 여름, 제 목에 살짝 몽우리가 잡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사람들이 제 목에 뭐가 볼록 튀어나와 보인다고 하여 살펴보니 계란만한 혹이 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병원을 찾으니 갑상선에 3cm의 물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계속 커진다면 식도를 압박할 수 있다고 하여 주사기로 물을 제거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후 몇 차례 주사기로 물을 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했던 것과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지요. 그리하여 매일 밤 9시부터 성전에서 열리는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몸이 피곤하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15일, 교회 행사가 있어 제 손바닥에 ‘갑상선 혹’이라 적은 뒤 믿음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 뒤 신기하게도 혹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저는 온전한 치료를 받고자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자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졌지요. ‘아, 기도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며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마지막 날 시



▲ 좌측 갑상선 전체에 약 3cm 크기의 낭종이 보임.

상식에서 추첨으로 뽑혀 상도 받아 너무 기뻐했습니다. 더욱이 그 뒤로 혹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언제 있었냐는 듯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 실명 위기의 눈이 정상으로 좋아졌어요”



아수세나 꾸에바스 성도 (85세, 아르헨티나만민가정교회)

저는 시력이 너무 나빠 안경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경을 안 쓰면 사물이 전부 흐릿하게 보이고 색깔 구분도 안 되었지요. 게다가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눈이 시리고 아파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올해 1월 초, 안과에 갔을 때 제 눈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왼쪽 눈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각막까지 손상될 상황이라며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1월 7일 주일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집사가의 도-치료하시는 주님’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쏙 와 닿았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저는 세상 방법에만 의존하려 했음을 뉘우쳤지요. 설교를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화상(畫像)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는데 ‘권능의 기도로 나도 치료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눈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던 중,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화면에서 큰 불이 나오더니 제 손과 눈을 덮는 것이었지요. 예배 후 집에 도착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이

선명하게 보이더니 전기를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집안의 물건들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날 아침, 정기 진료를 위해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글씨가 잘 보여 책적 읽으니 의사가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왼쪽 눈이 거의 정상이네요? 오른쪽 시력도 좋아져 양쪽 시력이 정상이예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3m 정도 떨어진 물체까지 아주 자세히 보여 저는 더 이상 안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